



## 저탄소 녹색생활 함께해요 탄소포인트제

고양시는 2009년부터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글 우동환 사진 기후대기과



### 저탄소 생활 실천의 시작은 탄소포인트제

최근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급격한 생태계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의 책임을 특정 조직이나 사람에게 묻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에는 평소에도 실천 가능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실내 적정온도 지키기, 냉장고에 너무 가득 음식을 채우지 않도록 하여 전력 사용을 줄이기, 양치나 샴푸·샤워를 할 때는 물 사용을 줄이거나 절수장치 등을 설치하기,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절전형 멀티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플러그 뽑아두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 진행

등 생각보다 단순한 것들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 그 이외 지역에서는 탄소포인트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절약 시 감축량을 산정하여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로 인센티브인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며 아파트단지, 학교 등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에너지 절약에 재투자하여 공용조명 LED 교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이용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약 100만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여 1가구당 1kW씩 절약할 경우,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

### '두 마리 토끼 잡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고양시는 지난해에 과거 2년 대비 에너지를 5% 이상 절약한 8,724세대에 약 7,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가입자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2,546톤으로, 이는 소나무 1만 9,909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하지만 올해 9월 말 현재 고양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는 1만8,255세대로 전체 44만 3천670세대의 약 4.1%에 불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온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은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거나 고양시 기후대기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통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라는 생활 속 작은 녹색생활을 실천하며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혜택까지 누리보는 것은 어떨까.

## Cpoint 탄소포인트제란?

### 운영체계



###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 서면 신청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 참여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 참여대상

- 개인·상업



가정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실 사용자

-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학교 학교장  
일반건물 건물관리자